

20090922(화)새벽 생중계시 정바울목사님이 대독하신 계시글

<이 시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과 느껴야 될 심정에 대해서 말씀 하신 예수님의 계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나의 희생과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전파해 달라.

십자가의 도야 말로 너희들이 정말 지금 전파해야 될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당시 사도들이 나를 잃고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함으로써 사도복음의 역사가 진행 되었도다.

너희들은 이 이천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 왔는지 아느냐. 모두다 순교의 피로써 이어져 내려 온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 한사람 한사람은 십자가의 좁은 길에 발을 내딛었고 이 시대 너희 스승 또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길은 너희들 또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깨닫겠느냐.

나와 너희 스승이 결국 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왜 구금 되었으며 왜 이 세상으로 부터 그토록 많은 수모를 당해야 하는 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애인도 될 수가 없노라.

그래서 깨어난 자들은 모두 이점을 진실로 깨닫고 그러하기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것이다. 깨달은 자들이 외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느껴질 것이다.

왜냐면 이 복음은 사랑의 원자폭탄이며 희생과 구속의 참도이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고 최후를 맞이하기 까지 내 어떤 제자들도 내 대신 십자가를 저 줄수도 도와줄 수도 없었다.

너희 스승의 현재 상황이 바로 이러하구나. 오직 그가 혼자서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에 올랐구나.

너희들은 통한의 결심으로 모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며 사생결단하는 각오로써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야 하리라.

이전에 너희가 얼마나 나약했었는지는 묻지 않겠다. 다만 바로 이 시각 너희들 깨어나거라. 내가 이 말씀을 외침으로 너희들을 흔들어 깨우노라.

지금은 내 아버지 역사의 최후의 시각에 놓여 있노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반드시 깨어나야만 한다.

어서어서 깨어나도록 하라. 깨어나서 나의 손과 발이 되고 나의 입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지체가 되어다오. 그리고 힘차게 우뚝 서거라.

이 복음은 상상을 못할 속도로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전파해 다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전도단 뿐 아니라 강사들 목회자들 관리자들도 모두 내 심정으로 부르짖기를 원하노라. 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 앞에 오직 깨어난 자들만이 진정코 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니라. 전도는 절대로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행해선 안 된다. 오직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지피 행하도록 하여라. 모든 악가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행하도록 하여라.

섭리사람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거라.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 할 수도 없는 힘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섭리나라가 점차로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세계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세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복음을 더 빠른속도로 펼쳐 나갈 것이다. 내가 예언한 이 말들을 나는 기필코 이루고 말 것이다.

내가 직접 이 섭리의 군대들을 통솔하여 저 흑암의 대군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나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내가 너희 스승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과 부흥강사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은 전도용 말씀이 아니니라. 전시의 군사 명령과 같은 것이다. 모두 하나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길 원하노라.

내가 총사령관이 되어서 그리고 너희 스승이 유일한 내 명령의 선포자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스승이 못 본다 할지라도 나 예수가 다 알고 또 내가 보고자가 되어서 모두다 그에게 내가 알려주고 있노라. 그러니 너희는 그가 그러한 곳에 가 있다고 하여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노라.

오로지 네 스승을 믿고 나의 지휘를 따라 이 역사를 나아갈 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